**취업 성공 후기**

< 국제통상학과를 통해 이룬 취업 성공 스토리 >

심리학과 4학년 김상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대학생 기간에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했나요? 부활동, 공부, 친목등등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전공공부에 흥미를 잃은 저는 유튜브에서 영어 자막을 달아주는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존의 유튜버들이 새로운 유튜버를 소개해주면서 규모도 커져서 다른 사람을 고용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소소한 성공에 안주하며 발전할 노력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 저는 우연히 주변 사람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번역기가 이제는 맥락도 파악할뿐만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에 찍힌 글씨를 자동으로 번역까지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의 번역기와 너무 다른 번역기의 발전에 놀랐으며 동시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일자리는 입지가 매우 좁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저의 소소한 성공에 자만하여 전공공부, 취업공부 등을 하지 않아서 그 어떤 것에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저는 수강신청 리스트에서 국제무역실무를 봤습니다. ‘영어는 잘하니깐 무역이라도 배우자’라는 생각없는(?) 생각으로 일단 수강신청을 했으며 2021.3월 그렇게 저와 국제무역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국제무역실무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저는 한상곤 교수님으로부터 무역인양성프로그램, 현장실습인턴십 지원 등을 들으며 인턴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저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학점이 현저히 낮으며 대외 활동 또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때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부분의 ‘영상강의로 지켜야할 사항’에서 1번 항목 ‘수업시작 5분전 입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중에서 수업 몇 분전 입장을 오리엔테이션에 굳이 넣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상곤 교수님은 그것을 굳이 넣었으며 심지어 1번 항목에 넣었습니다. 즉 이것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고 가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밀리는 것이 많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태도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10~15분전에 들어가서 대기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도 최대한 노력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학기 내내 노력했던 그 노력은 후반에 가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세비앙이라는 회사에서 무역업무를 수행할 인재를 찾는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세비앙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중견기업이지만 28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잡코리아에서 높은 안정성 점수를 부여받은 곳이었습니다. 이 때 이미 교수님 추천으로 합격한 현장십습 인턴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턴십은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세비앙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과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규직이라서가 아니라 회사의 안정성, 성정가능성, 내가 가서 주어진 무역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려하여, 6월 8일 저는 세비앙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수님에게 세비앙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약 한 시간 후에 교수님은 저에게 금요일 면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수요일, 목요일. 이틀하고도 하룻밤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는 생각을 할만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세비앙도 내가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던 중에 세비앙 유튜브 채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자가 아직 200명도 안되며 유튜브 전략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막 일을 하면서 수많은 유튜버들과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배운 팁들을 전부 다 녹인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PT 를 만드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PPT 의 구성을 설계하며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예시 사진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면접 준비 기간을 전부 사용해야했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너무 졸려서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감기는 눈을 강제로 부릅뜨고 작업을 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흐르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어느정도 완성이 다 되었을 때 ‘이정도 했으면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들었지만 교수님 추천으로 얻은 이 귀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 최선의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과 다른 학생 중에서도 저를 먼저 추천해주신 교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다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7시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2021.6.11일 9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 이후 저는 세비앙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는 그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저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힘이 탁 풀리면서 안도했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40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준비만 했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만큼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과 동시에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월 2일부터 저는 세비앙의 해외수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출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실무에서 배운 내용들은 제가 업무를 이행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필수 용어들을 배운 덕분에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에 일 배우는 속도가 더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시간도 있어서 회의 때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으며 현재 회사에서 대표님과 상사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남겨 즐거운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과제로 수출관련 서류 작성을 해본 경험은 서류작업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르침과 기회를 준 아주대 국제학부와 한상곤 교수님에게 매우 큰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무역에 관심있는 학생분들에게 국제통상학과의 수업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에 학과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저처럼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을 하든 그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다 연결할 수 있으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험들이 오히려 서로 결합하여 더 큰 결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이 하는 것을 꾸준히 하여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오로지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된 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회는 스스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다는 국제학부의 수업, 진로면담, 현장실습인턴십, 국제무역인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를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